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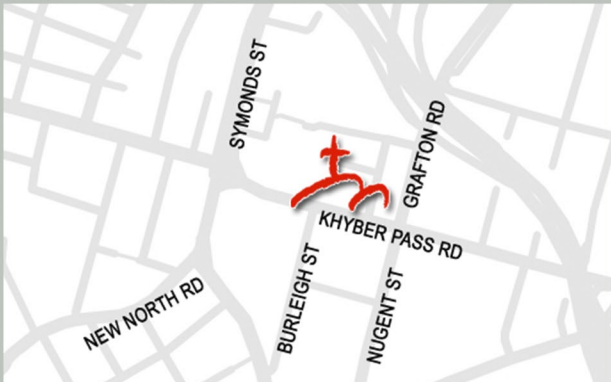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는 29일 수요일 예배는 베트남 공동체 주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 주일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4.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는 창립주일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태한 목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KPCA)를 마치고 한국에 체류 중이며 이번 주 토요일(25일)에 귀국합니다.
6. 새벽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5월 교회 사역]

5월 29일 (수) 공동체 주관 예배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2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성훈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요한복음 6:44-45 인도자
■ 찬송	20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14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제용 장로
성경봉독	사무엘하 8:6 인도자
찬양대찬양	한 기도 한 노래 내무십자가찬양단
설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성훈 목사
찬송	310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이성훈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기도	정진택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4:7-18
설교	[우리가 가진 보배] 이성철 목사
찬송	약할때 강함되시네
주기도	다같이

[5/6월 기도 순서]

5월 26일 (주일) / 김병진 목사  
5월 29일 (수) / 최희숙 집사  
6월 02일 (주일) / 김철재 집사  
6월 05일 (수) / 한누리 집사

청년예배

주일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채다운 자매
다음주일	박상영 형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5월 26일 주일 청년 예배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5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광희, 김자경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5/19  
21권 20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이번 주는 이태한 목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오며 문안 드립니다.

저는 벤쿠버에서 개최된 총회를 잘 마치고 어제(16일) 다시 한국에 돌아와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44회 교단 총회는 중남미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와 일본에서 300명 가량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선교사들을 합쳐 거의 400명에 가까운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는 이름 그대로 세계 곳곳에 흩어진 72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단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회교화 되어가는 유럽 교회들, 동성애와 마약 합법화로 가정의 근간과 기초가 무너져버린 미국과 캐나다, 가난에 시달리는 중남미 성도들은 물질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즐비한 현실을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싸맬 것인가를 자신들의 사역 경험을 토대로 그 해결점을 찾아보는 유익한 총회였습니다.

열방에서 모여 온 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도 있고 문명과 문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오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말리 섬(사도행전 27,28에 나오는 멜리데섬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곳에까지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2000년 전 바울사도가 뿌린 복음이 세월의 흐름 속에 변질되고 사라져 또 다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땅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과 안타까움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그 부름심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음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뵈실 수 있음에 기쁨이 앞섭니다.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뵈겠습니다.

#### 기도제목

1. 남은 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롭게 보내도록.
2. 열방의 모든 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도록.

## PRAYER

1.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2. 육신의 질병으로 곤고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3. 열방으로 흩어진 선교사들이 영적전쟁에서 이기고 강건하게 사역하도록.

주보 3면은 갈보리 공동체의 자유나눔 공간입니다. LTH-07@calvary.org.nz으로 나누고싶으신 내용을 보내주세요.

###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를 하면서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를 처음 시작 할 때는 이제까지 받아왔던 일반적인 성경공부 이겠거니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첫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은 조금은 다른 성경공부 방법에 별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첫과를 끝마치고부터는 처음에 들었던 나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과 한과를 끝내 감에 따라 일반적인 성경공부에서 느꼈던 성경의 지식이 머리 속에 쌓여가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공부를 다 마쳤을 때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공부를 리드하시는 목사님이 있지만 팀원들이 예습을 통해서 미리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한 실천 과제를 같이 의논하며 결정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 우리 월요일반의 팀원들, 그리고 다른 반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풍성한 생명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성경공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마다 실천 과제가 있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살게 되므로 삶이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중심적이 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월요일 반에서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외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를 다시 살아갑니다. 팀원끼리 삶 속에서 실천했던 일들을 나누며 위로를 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서로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짜증이나 불평불만을 감사로 돌리므로 내가 죄에서 조금은 멀어짐을 느낀다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과 거듭남을 시작으로 이제 성령충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이 무엇일까라는 설레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의 마지막까지 복음의 동역자로서 힘들어하고 지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 주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풍성한 생명 월요일반 정혜숙권사

## 성경말씀 외우기 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장 20절